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9.(목) 12:00
(지 면) 2026. 11. 20.(금) 조간

한파 대비 우수사례,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 한파쉼터, 취약계층 관리, 지역주민 홍보 등 분야별 우수사례집 배포
- 지방정부의 선제적 현장 대응, 안전관리 강화 독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한파 대비 쉼터, 피해저감시설 등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한파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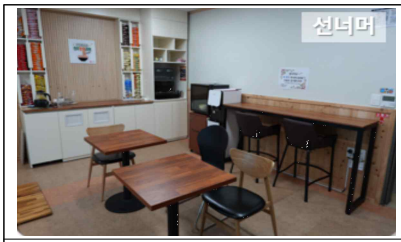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한 현장 중심 우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한파쉼터 및 저감시설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민관협력 분야 ▲주민 홍보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 주민 친화형 한파쉼터 운영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한파쉼터를 대폭 확충했다. 전북 전주시는 사회복지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함께라면 쉼터'를 개방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이동식 한파쉼터 공간인 '온기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는 우체국을 쉼터로 추가 지정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월 10일에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2천여 곳의 우체국을 한파쉼터로 개방하는 등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함께라면쉼터 전경(전주)


온기소 전경(서울 광화문)



우체국 쉼터 지정 확대(전국)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됐다. 인천 제물포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주민의 건강상태와 난방기기 작동상태 등 생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한파 대비 생활안정 물품 전달과 행동요령 홍보를 병행했다.

전남광주 강진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table>
<tr>
<td></td>
<td></td>
<td></td>
</tr>
<tr>
<td>쪽방 거주민 현장 점검(인천)</td>
<td>에너지효율개선 지원(강진)</td>
<td>온열매트 배부모습(보령)</td>
</tr>
</table>

>> 민관협력을 통한 한파 대응

민관협력을 통해 한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한파 쉼터 확충을 위해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편의점 36개소를 쉼터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제설함 점검, 한파쉼터 안내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활용해 폭염·한파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산업현장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table>
<tr>
<td></td>
<td></td>
<td></td>
</tr>
<tr>
<td>쉼터 확충 업무협약 체결(세종)</td>
<td>쉼터 확충 업무협약 체결(부산)</td>
<td>산업안전지킴이단 현장 예찰(전북)</td>
</tr>
</table>

>> 한파 행동요령 등 지역주민 홍보

서울시는 누리집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한파특보 발효 현황, 한파쉼터 운영정보, 한파저감시설 설치 위치·현황 등을 시민에게 상세히 제공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한파 관련 정보를 적극 알리고 있다.

경남도는 현수막·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행복 SMS’, ‘한파 마을책임자’ 등 인적 전달체계를 연계해 지역 주민의 한파 행동요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한파시설 안내(서울안전누리)</td>
<td>ATM기 홍보(경남)</td>
<td>한파대비 행동요령 스티커(경남)</td>
</tr>
</table>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등 각 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는 한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형석 (044-205-6360)
		담당자	서기관	구은종 (044-205-6366)
			전문관	김부생 (044-205-63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